

다양한 관점에서 「참혹한 사건」 읽기: 제목과 신문기사를 중심으로*

최 석 무

문학 텍스트는 텍스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문과 구별된다. 설명문은 “독자가 동의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분명한 주장을 구성”하려 한다. 반면에 문학 텍스트는 그렇게 “직선적”이 아니라서 독자에게 “텍스트가 담고 있는 경험, 상황, 이야기를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Gajdusek & vanDommelen 198). 따라서 독자는 문학 텍스트의 다른 부분에 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 근거를 통해서 해석에 적극 참여한다. 독자가 텍스트에 나타난 어떠한 근거에서 해석하느냐에 따라 텍스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한 문학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은 다양한 문학비평 이론의 도입으로 가능하다. 정신분석학, 페미니즘, 탈식민주의, 생태주의 등과 같은 비평이론은 문학 텍스트 해석의 지평을 넓혀 놓았다. 이러한 비평이론은 문학 텍스트를 문학 외적인 요소와 연결시키므로 텍스트를 다양한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다. 우리가 고전이라 부르는 작품은 다양한 관점으로 읽기 좋은 작품이다. 새로운 비평이론은 고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제공한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의 작품에 대한 논문이 계속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특별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나오고 있는 것은 그의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은 조이스 작품의 의미가 모호하고 텍스트 구성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의 작품의 이러한 특징은 단점으로 작용하여 일반 독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조이스는 이러한 단점이 위대한 작가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그는 “『율리시스』에 매우 많은 수수께끼와 퀴즈를 숨겨놓았기에 대학교수들은 수세기동안 내가 뜻하는 바를 논하느라 바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신의 불멸을 보장하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말한다(Ellmann 521).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조이스 연구는 그의 이러한 작품 구상방법과 의도가 적중하였음을 보여준다. 그의 난해한 텍스트는 다양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새로운 비평이론의 등장은 그의 작품을 새로운 시각으로 읽게 한다. 이제 고전의 반열에 들어선 그의 작품은 여전히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이다.

조이스의 초기 작품인 『더블린 사람들』(*Dubliners*)은 일반 독자들도 접근 가능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후기 작품과 구별된다. 영미권에서 이 단편집을 필독서로 지정한 중등학교도 많다. 영미권에서 중등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작품은 작품성이 있으면서도 보편화된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편집에 수록된 작품 가운데 몇 개가 대학교 교양영어교재에도 수록되어 있을 정도로 비전공자들도 영어를 공부하기 위해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읽히는 작품 가운데 하나가 「참혹한 사건」(“A Painful Case”)이다. 이 작품은 「경기가 끝난 후」(“After the Race”)와 더불어 조이스가 “가장 빈약하다”고 평가한 작품이다(Ellmann 229). 그러나 조이스의 이러한 혹평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여전히 많은 비평적 주목을 받고 있는 작품 중의 하나이다. 지금까지 이 작품에 대한 많은 해석이 나왔지만 그래도 여전히 의미가 모호하여 다양한 해석을 제공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의 제목과 신문기사는 다양한 관점에서 볼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제목과 신문기사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이 작품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열린 텍스트임을 증명하려 한다.

II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A Painful Case”라는 제

목의 의미이다. 이 제목은 텍스트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신문기사의 부제에서 왔다. 그리고 이 부제는 시드니 퍼레이드 역(Sydney Parade Station)에서 기차에 치여 죽은 시니코 여사(Mrs Sinico) 사건을 가리킨다. 신문기사에서 부검시관은 시니코 부인 사망 사건을 “매우 참혹한 사건”(D 111)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은 국내에서 흔히 「참혹한 사건」으로 번역된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 제목은 이 작품의 제목의 의미를 시니코 부인의 참상으로 한정시키는 문제가 있다. 작품의 제목을 신문기사의 부제와 동일시하는 것은 작품 제목의 의미를 축소시킨다. 따라서 작품 전체에서 “A Painful Case”의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제목의 표면적 의미뿐만 아니라 작품 전체적 관점에서 제목이 가진 의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목을 「가슴 아픈 사례」라고 번역할 때, 독자는 시니코 부인과 더피씨(Mr Duffy)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기대한다. 시니코 부인의 외로운 삶과 죽음은 독자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그녀는 더피씨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생각하지만 그로부터 버림을 받는다. 신문기사에서, 그녀의 죽음이 우리의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아무도 그녀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그녀의 남편 시니코씨는 “22년 전에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2년 전에 과도하게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기 전까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했다”고 말한다(D 111). 그의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그는 이미 4년 전에 아내를 여자로 보지 않았고, “어떤 다른 남자가 그녀에게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D 106). 특히, “자신의 환락의 세계에서 그녀를 완전히 배제했다”(D 106)는 말에는 그가 “혼외관계를 갖고 있다는 암시가 있다”(Norris 162). 노리스의 주장에 한 발 더 나아가, 조이스가 굳이 “환락의 세계”(gallery of pleasures)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의 여자관계가 복잡함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니코씨는 그들의 불행한 결혼생활은 아내의 음주 때문이라고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한다. 시니코 부인의 딸도 마찬가지이다. 그녀 역시 술에 취해 사는 어머니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왜 “밤에 술을 사러 나가는 습관”(D 111)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못한다. 그녀는 “어머니를 설득해 금주동맹에 참여시키려 한 적도 있다”(D 111)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이 없음을 주장한다. 신문기사 마지막 행에는 “과실(blame)은 누구에게도 없었다”(D 111)고 제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결론은 그녀의 죽음의 진실을 은폐하는 것으로 독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다.

벤스톡(Benstock)은 이 작품이 “『더블린 사람들』에서 ‘blame’이란 단어가 등장하는 유일한 이야기이며 4번 등장한다”(5)고 지적하면서 이 단어의 중요성을 말한다. 신문기사 말미에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누구도 책임이 없다고 나왔기에 “blame”이란 단어는 “책임이 있는 사람을 찾아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Benstock 5)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그리고 이 작품은 더피씨가 그녀의 죽음에 책임을 있음을 자각하면서 끝나는 이야기이다. 그도 처음에는 시니코 부인의 가족처럼 알콜 중독에 빠진 그녀를 비난하지만, 외로웠던 그녀의 인생을 이해하고 자신의 과오를 깨닫는다. 자신이 “인생의 향연에서 쫓겨난”(D 113) 자임을 깨닫게 되지만 그의 깨달음은 그녀가 죽은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허무한 깨달음이다. 그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한 여인을 거부하여 이제 철저히 혼자임을 느낀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피씨의 경우는 시니코 부인의 경우처럼 “가슴 아픈 사례”이다.

작품의 전반적인 내용을 고려해 볼 때, “A Painful Case”는 「고통스러운 틀」 또는 「고통스러운 사회규율」로도 번역할 수 있다. 더피씨는 사회적 인습이나 관습을 거부하는 특이한 사람으로 등장한다. 그는 “성탄절에 친척을 방문하고 그들이 죽었을 때 묘지에 따라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생활을 규제하는 어떤 인습도 따르지 않았다”(D 105). 그는 진보주의자 중에서 진보주의자로 등장한다. 그는 아일랜드 사회주의 운동에 관심을 갖고 모임에 참여하지만, 자신을 “스무 명 가량의 노동자들 사이에 있는 독특한 사람”(D 106)이라고 규정한다. 그가 자신을 “독특한 사람”이라 규정한 것은 그가 도덕적, 이념적으로 다른 노동자들보다 우월하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한다. 그는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문제점과 사회주의 운동의 문제점을 간파한다. 즉, 그는 노동자들을 “임금문제에 과도하게 관심”이 있는 “협상꾼은 현실주의자”로 정의하고, “아일랜드에서의 사회혁명은 몇 세기 동안 올 것 같지 않다”고 결론을 내린다(D 107). 그는 은행원으로 오랫동안 근무해온 중산층에 속하지만, 중산층과도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자신의 계층 사람들을 “도덕문제를 경찰관에게, 예술을 흥행사에게 맡기는 우둔한 중산층”(D 107)이라 비난한다. 조이스는 더피씨를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인물로 그리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그가 시니코 부인과의 관계에서 보통사람과 다른 행동을 할 것을 기대한다.

그렇지만 그의 행동은 독자의 기대와는 달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다. 특히 그가 그녀와 헤어지고 나서 두 달 후에 쓴 두

문장 중 한 문장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성적 관계가 있어야 하기에 우정이 불가능하다”(D 108)는 내용은 그가 사회규율에 얼마나 지배받는 삶을 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런 글을 쓰면서 더피씨는 그녀와 헤어진 것을 정당화한다. 그는 중산층을 비난하면서도 중산층의 “사회규율의 경계선을 넘지 않는다”(Benstock 130). 이러한 사회규율에 따라 그는 “그녀와 기만의 희극을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와 당당하게 살 수 없었다”(D 112)고 말하면서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다. 빅스비(Bixby)는 더피씨의 행동규범은 “진보적인 철학자나 예술가의 텍스트가 아니라 보수적인 신문인 [더블린 이브닝 메일]에서 배운 것이다”고 주장한다(114).¹⁾ 그리고 더피씨가 석간신문을 읽으면서 “거기에 제시된 대중담론을 삼키고 후기 빅토리아조 더블린의 관습적인 가치를 내면화 한다”(114)고 주장한다. 사실 이 작품에서 그는 많은 책을 보유한 사람으로 나와 있지만, 그가 책을 읽는 장면은 없다. 단지 그는 “저녁을 먹은 후 디저트 삼아 석간신문을 읽는다”(108).

빅스비는 보수신문인 석간신문에 많은 가치를 두고 있지만, 이 작품에서 더피씨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은 가톨릭교회이다. 그는 자신을 구속할 여지가 있는 지역을 벗어나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채플리조드(Chapelizod)에서 산다. “더블린의 다른 교외지역은 천박하고 신식이고 허세”(D 103)를 부리는 환경이지만 이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그가 사는 지역은 이름에서부터 가톨릭교회와 연관이 있다. 채플리조드라는 지역은 트리스탄(Tristan)과 이졸데(Isolde)의 사랑에 관한 전설이 있는 곳으로 그 이름은 “이졸데의 교회”에서 유래하였다(Gifford 81). 따라서 더피씨가 채플리조드에 사는 것은 그가 가톨릭교회의 영향력 하에 여전히 놓여있음을 암시한다. 그는 교회에 나가지는 않지만 가톨릭 규율에 얽매인 삶을 살고 있다. 『머누스 교리문답서』(Maynooth Catechism)가 더피씨의 “서가 맨 위쪽”에 “천으로 된 공책커버로 꿰매진 채 놓여있다”(D 103)는 사실은 가톨릭 교리서의 중요성을 상기시킨다. 그는 현재 다니는 “교회도, 신앙도 없지만”(D 105), 그가 더블린에서 자라면서 내면화한 가톨릭 도덕관은 여전히 그를 지배한다. 그는 시니코 부인의 집에서 그녀와 단 둘만의 시간을 갖지만 그들의 관계를 가톨릭적 관점으로 묘사하여 낭만적인 관계의 가능성을 일축한다. 즉, 그

1) 빅스비는 “the buff Mail”(D 109)을 『데일리 메일』(Daily Mail)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담황색(buff)으로 20세기 초 더블린에서 유통된 신문은 『더블린 이브닝 메일』(Dublin Evening Mail)이다.

는 시니코의 집을 “고해실”(confessional)(D 108)로, 그의 이야기를 듣는 시니코 부인을 “고해신부”(confessor)(D 106)로, 그리고 자신을 “천사 같은 존재”(an angelical stature)(D 107)로 본다. 그에게 있어 낭만적 관계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그의 서가를 묘사한 첫 부분에 암시되어 있다. 굳이 조이스가 워즈워드 전집 (*A Complete Wordsworth*)이 “맨 아래쪽 서가에 놓여있다”(D 103)고 기술하고 있는 것은 더피씨에게 워즈워드가 대변하는 낭만적 기질이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그가 조지가(George’s Street)에서 저녁을 먹다가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접하고 몇 번이나 읽은 후 집에 돌아가 다시 그 기사를 읽는 장면은 의미심장하다. 그는 “신부가 시크리토(Secreto) 기도문을 읽듯이 입술을 움직이며 신문을 읽는다”(D 109). 그의 이러한 행동은 가톨릭 교리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여 시니코 부인의 죽음과 거리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가 시니코 부인의 죽음에 대해 처음에는 그녀와 교제한 것을 부끄러워하며 어떠한 동정의 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은 그를 지배하는 가톨릭 교리 때문이다.

더피씨가 시니코 부인과 헤어지고 나서 두 달 후에 쓴 또 하나의 문장은 “남자와 남자 사이에는 성적관계가 금지되어 있기에 사랑이 불가능하다”(D 108)이다. 이 문장은 20세기 초, 동성연애를 금지하는 사회규율이다. 동성연애 반대담론은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 재판에서 촉발되었으며 동성연애에 대한 사회적 반감은 『율리시스』(*Ulysses*)에서 조이스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사랑”(U 9.659)이라고 표현한 것에 잘 나타나 있다. 더피씨가 쓴 또 다른 문장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는 성적관계가 있어야 하기에 우정이 불가능하다”(D 108)는 내용과 달리 이 문장은 작품과 별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조이스의 작품 스타일을 고려할 때 독자는 하나하나의 문장이 작품구성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다. 더피씨의 남자와 남자사이의 사랑에 대한 관심은 그가 동성연애자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가 시니코 부인을 거부한 것은 그가 동성연애자이기 때문이 아닌가? 노리스는 더피씨가 동성연애자이기 “유혹을 피하기 위해 절제하는 삶을 산다”고 주장한다(167). 더피씨는 사회적으로 금지된 성적성향 때문에 사람을 피해 시 외곽에 혼자 살고, 혼자 한적한 곳에서 밥을 먹고, 오페라나 콘서트에 혼자 간다. 특히 그는 시니코 부인의 딸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시니코 부인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녀의 딸의 “외모나 매력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Norris 167). 이 작품에서 더피

씨가 동성연애자라는 확실한 근거는 없다. 그렇지만 그가 시니코 부인과 헤어진 후 “책상이 놓여있는 종이 뭉치에 거의 글을 쓰지 않았다”(D 108)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쓴 두 문장은 그에게 그동안 일어난 일을 해명 또는 변명하기 위해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해명 또는 변명은 두 개의 사회규율이 그를 옥죄는 “고통스러운 틀”이며 그는 이 틀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III

「참혹한 사건」에서 특이한 것은 시니코 부인의 사망을 다룬 신문기사가 그대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작품 중간에 삽입된 이 신문기사는 이야기의 자연스런 흐름을 끊고 있다. 이러한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이야기의 단절은 더피씨의 단절된 인간관계를 상징한다. 이는 더피씨가 다른 사람들과 진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의 혈육인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다. 그에게 아버지는 “성탄절에 방문하고 죽었을 때 묘지에 따라가는 “친척”(D 105)의 한 사람일 뿐이다. 유일하게 “아버지”를 다룬 다음 묘사를 통해서도 그와 그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그의 아버지는 사망했다; 연하의 은행 동료가 퇴직했다”(D 108). 여기서 아버지의 죽음은 은행 동료의 퇴직과 나란히 묘사되어 있다. 세미콜론으로 연결된 두 문장은 부자간의 관계가 “텅 빈 관계”임을 나타낸다(Ingersoll 128). 그의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그는 어머니를 갈망하는 사람이다. 그는 시니코 부인이 “어머니와 같이 배려”(D 106)있는 사람임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애착을 가지게 된다. 그가 세상과 소통하기 위해 사람들을 만날 때도, 이 만남은 “그의 고립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Leonard 211). 사회주의자 모임에 나가나, 이 모임은 자신이 “독특한 사람”(D 106)임을 느끼게 한다. 그는 시니코 부인을 만나 “지적인 삶은 공유하면서”(D 106) 인간적인 유대관계를 모색하지만, “모든 인연은 슬픔에 이르게 되는 인연”(D 108)이란 결론을 맺고 관계를 청산한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더피씨가 느낀 것은 “외로움”(D 114)이듯이 이야기 중간에 삽입된 신문기사는 단절된 인간관계를 상징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신문기사는 이 작품의 결점일 수 있

다. 단편소설은 짧은 분량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아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문학 장르인데 이 작품은 신문의 일부분이 아니라 신문제목과 부제 및 기사를 그대로 담고 있다. 그렇지만 조이스가 작품의 유기적 통일성을 강조한 작가이기에, 이 신문의 내용은 작품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가정해야 한다. 헤링(Herring)이 이야기 하듯이, 신문기사와 이야기는 “이야기의 완성을 위해 서로 서로 의존한다. 각각의 부분은 부재하는 노면(gnomon)적 요소에 해당한다”(68). 따라서 이야기에 없는 내용은 신문기사에 있고, 신문기사에 없는 내용은 이야기에 있어, 두 부분을 다 이해하지 작품 전체의 내용을 알 수 있다. 각각의 부분은 작품 전체에 연결되기에 불필요해 보이는 작품의 각 부분도 전체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의미가 있다.

더피씨는 “신부가 시크리토(Secreto) 기도문을 읽듯이 입술을 움직이며 신문을 읽는다”(D 109). 기도문 “시크리토는 라틴어로 비밀”(Brown 284)이란 의미로 신문기사는 이 작품에 담긴 비밀을 독자에게 어렴풋이 보여준다. 신문기사는 시니코 부인이 시드니 퍼레이드 역에서 기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검시관 및 목격자와 가족의 진술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관점에서 작성되었다. 신문 기사를 제외한 작품의 나머지 부분이 더피씨의 관점에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와 더피씨는 신문 기사를 통해 시니코 부인에 대해 알 수 있다.

기사에서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 그녀와 더피씨의 관계를 연상시킨다는 점이다. 그녀가 기차에 치여 죽은 이유는 선로를 무단횡단 했기 때문이다. 이 기사에는 “선로를 횡단하다”(cross[ing] the line[s])는 구절이 4번 반복된다. 이는 이 구절이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구절은 우리말 의미 그대로 남녀가 “선을 넘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시니코 부인의 부적절한 행동을 가리킨다. 선로는 “공고 좁은 로마 가톨릭 문화인 사회규율”을 상징하고, 이 사회규율은 “그녀가 결혼의 범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한다”(Torchiana 171). 이 사회규율은 남성 중심의 사회질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니코 부인을 친 기차는 킹스타운(Kingstown)에서 출발한 기차이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즉, 킹스타운은 “남성 군주가 다스리는 곳”으로 이곳에서 나온 기차는 여성의 삶을 전적으로 지배하는 남성적 힘을 상징한다(Lowe-Evans 398). 시니코 부인의 “사망은 . . . 쇼크와 심장마비 때문일 것이다”(D 110)라는 기사는 “시니코 부인의 사고뿐만 아니라 더피씨가 그녀를 거부한 앞 장면을 가리킨다”

(Herring 68). 사고 시 그녀가 입은 머리와 어깨의 외상은 “보통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D 110)고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그녀의 죽음은 외상 때문이 아니라 더피씨에게 버림받은 충격 때문이다.

신문기사는 더피씨가 시니코 부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신문을 읽은 더피씨도 큰 충격을 받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해석은 작품을 단순화시킨다. 시니코 부인이 더피씨에게 퇴짜를 받아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은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려면, 그들의 관계가 끝나자마자, 그녀가 사망하였거나 그녀의 생에 지대한 변화가 와야 한다. 시니코씨의 견해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2년 전부터 과도하게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한다(D 111). 시니코양도 “그녀의 엄마는 최근에 술을 사기위해 밤에 나가는 습관이 있었다”(D 111)고 말한다. 따라서 시니코 부인은 더피씨와 헤어지자마자 과도하게 음주하는 습관을 가지게 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녀가 사망한 것은 그녀가 더피씨에게 절교당한 것과 관련이 있는지 알 수 없다. 또한 더피씨가 그녀가 사랑한 마지막 남자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 작품은 신문기사를 제외하고 더피씨의 행동과 생각만을 볼 수 있어 시니코 부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다. 더피씨는 “한 인간이 그를 사랑하였으나 그녀의 인생과 행복을 부정하였다. 즉, 그녀에게 치욕을, 수치스러운 죽음을 선고했다”(D 113)고 생각하며 그녀의 죽음에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더피씨의 행동 때문에 시니코 부인이 자살을 했거나, 절망에 빠졌다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Werner 53). 우리는 그에게 있어 그녀가 마지막 여자임을 알지만, 그녀에게 그가 유일한 남자인지는 알 수 없다. 특히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밤늦게 선로를 무단 횡단하는 습관이 있었다”(D 110)고 한다. 이는 그녀가 선을 넘는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런 관점에서 더피씨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자책하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 만일 그녀가 더피씨와의 관계가 끝난 후, 상습적으로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면 더피씨는 이 작품의 결말과 같은 자기인식에 이를 수 있을까?

우리는 신문기사에서 그녀의 타락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녀의 가족인 남편과 딸은 그녀의 외로운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녀의 타락을 이야기 한다. 그들이 묘사하는 그녀의 타락은 무절제하게 술을 마시는 행위이지만 신문기사의 다른 장면은 성적인 타락을 암시한다. 이 신문기사에서

유일하게 대화체로 제시된 다음 부분에서 “fall”은 이중적 의미를 갖는다.

배심원: 당신은 그녀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You saw the lady fall?)

목격자: 네. (D 110)

이 신문기사에는 “fall” 또는 “fell”이 세 번 등장한다. 문맥상 두 번의 경우는 “쓰러짐”, “쓰러지다”의 의미이다. 그러나 유일하게 대화체인 위의 독립된 인용구에서 “fall”은 “쓰러지다”는 의미 외에 “타락하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녀의 도덕적 타락은 그녀가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과 연관지을 수 있다. 기차에 치인 그녀의 “상처는 정상적인 사람에게서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로 대단한 게 아니다”(D 110)고 설명되어 있는데 이는 그녀가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시니코 부인의 타락은 성경에서 하느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상기시킨다. 그녀는 선을 넘는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이브처럼 하느님의 계율을 어긴 타락한 여성이다. 이 작품에는 독자들이 아담과 이브의 타락을 상기시킬 수 있게 사과가 등장한다. 더피씨가 “책상 안에 넣어두었다가 잊어버린 “너무 익어 문들어진 사과”(D 104)는 “그가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욕망, 관능, 그리고 사랑, 즉 인생의 향연과 깊은 관계가 있다”(박윤기 8). 이 사과는 선악과처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가톨릭에서 악으로 규정되어있기에, 더피씨는 그 관계를 거부한다. 사과를 먹지 않은 더피씨는 이브와 사랑을 나누는 아담이 될 기회를 놓친다. 그 대신 그는 한 때 여인을 유혹한 사탄에 불과한 존재가 되었음을 작품 끝부분에서 깨닫게 된다. “킹스브리지 역(Kingsbridge Station)을 구불거리며 기어 나오는 화물열차”(D 113)는 “어둠을 뚫고 구불거리며 가는 불같은 머리를 가진 벌레”(D 113)로 묘사된다. 이 벌레는 뱀인 사탄의 모습이다. 이 열차는 시니코 부인을 친 “킹스타운 발 10시 완행 기차”(D 109)처럼 남성 군주와 관계있는 역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더피씨를 가리킨다. 그는 사탄으로서 시니코 부인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그는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생각과 그녀의 생각을 섞었다(D 106). 생각이 섞이는 과정은 “팔다리가 서로 섞이는 것처럼 성적인 이미지”이다(Norris 162). 독자는 시니코 부인처럼 그들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에 이를 것이라 예상한다. 그래서 그녀가 “그의 손을 열정

적으로 잡고서 그녀의 얼굴에 대는 것”(D 107)은 자연스럽게 보인다. 그러나 더피씨는 여성을 성적으로 유혹을 하는 것 같으면서 결국에 그녀를 거부하여 그 여성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사탄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한다. 이런 의미에서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전개되는 더피씨의 자기 인식은 그녀를 타락하게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피씨는 시니코 부인이 자신을 만나기 전에는 “그러한 모험을 한 적이 없다”(D 106)는 점을 알고 있다. 그렇기에 그녀가 타락한 여인의 삶을 살다가 죽게 된 것은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한다.

IV

지금까지 「참혹한 사건」의 제목과 신문기사가 가진 다양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제목과 신문기사는 작품의 내용상 또는 작품의 배경이 된 아일랜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제목인 “A Painful Case”는 작품 전체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크게 3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그리고 이는 「참혹한 사건」, 「가슴 아픈 사례」 또는 「고통스러운 틀」로 번역될 수 있다. 번역이 작품의 표면적 의미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라면 제목은 「참혹한 사건」이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한다면 「가슴 아픈 사례」 또는 「고통스러운 틀」이 더 나은 것이다. 어느 제목이 가장 적합한지는 독자의 몫이다. 그리고 독자는 작품의 전체적인 의미를 고려하여 더욱 적합한 제목을 각자 찾을 수 있다. 조이스 작품은 독자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결정되는 열린 텍스트이다.

신문기사는 시니코 부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과 의문을 담고 있다. 그동안 많은 학자들은 시니코 부인의 죽음은 더피씨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더피씨의 자기인식은 잘못된 추측에 의해 유발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제까지 이 작품을 해석해온 틀이 완전히 무너진다. 작품전체의 설정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이 조이스가 이 작품을 「경기가 끝난 후」와 더불어 “가장 빈약한” 작품이라 평가한 이유일 수 있다(Ellmann 229). 그리고 이 작품은 조이스가 23살이었던 1905년에 쓰인 작품임을 고려해 본다면, 젊은 작가 조이스의 한계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더피의 인물묘사는 작가

인 조이스의 의도일 수 있다. 즉, 더피씨의 잘못된 상황인식은 세상과 격리되어 혼자 살아가는 그의 세계관의 한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더피씨의 잘못된 상황인식은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이와 같이 조이스의 텍스트는 열린 텍스트이기에 독자의 독서방법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제공해준다.

(고려대)

인용문헌

- 박윤기. 「“가슴 아픈 사건”에서의 사랑의 부재와 제임스 더피의 좌절」. 『제임스 조이스 저널』 15.2 (2009): 5-20.
- Benstock, Bernard. *Narrative Con/Texts in Dubliners*. Urbana: U of Illinois P, 1994.
- Bixby, Patrick. “Perversion and the Press: Victorian Self-Fashioning in ‘A Painful Case’.” *A New & Complex Sensation: Essays on Joyce’s Dubliners*. Ed. Oona Frawley. Dublin: Lilliput, 2004. 112-21.
- Brown, Terence. “Not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 Ellmann, Richard. *James Joyce*. 2nd ed. New York: Oxford UP, 1982.
- Gajdusek, Linda and Deborah vanDommelen. “Literature and Critical Thinking in the Composition Classroom.” *Reading in the Composition Classroom: Second Language Perspectives*. Eds. Joan G. Carson and Ilona Leki. Boston, MA: Heinle & Heinle, 1993. 197-217.
- Gifford, Don. *Joyce Annotated: Notes for Dubliners and A Portrait of the Artist as a Young Man*.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2.
- Herring, Phillip F. *Joyce’s Uncertainty Principle*. Princeton: Princeton UP, 1987.
- Ingersoll, Earl G. *Engendered trope in Joyce’s Dubliners*. Carbondale: Southern Illinois UP, 1996.
- Joyce, James. *Dubliner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2000. Abbreviated as *D.*
- _____. *Ulysses*. Ed. Hans Walter Gabler with Wolfhard Steppe and Claus Melchior.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6.
- Leonard, Garry M. *Reading Dubliners Again: A Lacanian Perspective*. Syracuse, N.Y.: Syracuse UP, 1993.
- Lowe-Evans, M. “Who Killed Mrs. Sinico?” *Studies in Short Fiction* 32.3 (1995).
- Norris, Margot. *Suspicious Readings of Joyce’s Dubliners*.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2003.
- Torchiana, Donald T. *Backgrounds for Joyce’s Dubliners*. Boston: Allen & Unwin, 1986.
- Werner, Craig Hansen. *Dubliners: A Pluralistic World*. Boston: Twayne Publishers, 1988.

Abstract

Reading “A Painful Case” from Multiple Perspectives:
Centering on the Title and the Newspaper Article

Seokmoo Choi

Unlike an expository essay, a literary text can be read from multiple perspectives and can be interpreted in diverse ways. Among literary texts, Joyce’s works are noteworthy because of their ambiguities and social backgrounds, which enable us to interpret each work in diverse ways. “A Painful Case,” a story that was dismissed as one of his two weakest stories by Joyce himself, contains two discussion points the interpretations of which are open to readers: the title of the work and the newspaper article in the story.

On the surface, the title, “A Painful Case,” appears to refer to one particular incident: ‘the train accident’ that caused Mrs. Sinico’s death. From the perspective of the whole story, however, the title might be interpreted in two different ways: ‘a heartbreaking story’ and ‘oppressive social mores.’ The meaning of the title depends on from what perspectives the text can be read. After evaluating each interpretation, readers can decide which one is the more logical or can choose their own interpretation.

The newspaper article in the story has been read as an implication of how Mr. Duffy’s rebuff of Mrs. Sinico had brought about her death. But such an interpretation is challenged when the article is examined from diverse viewpoints. After reading the article, Mr. Duffy was misled to believe that he was responsible for her death. Whether his misconception is presented to demonstrate his narrow views of the world or simply exposes Joyce’s inability to tell a coherent story is also open to interpretation.

■ **Key words** : James Joyce, *Dubliners*, “A Painful Case,” multiple perspectives, title, article

(제임스 조이스, 『더블린 사람들』, 「참혹한 사건」, 다양한 관점, 제목, 신문기사)

논문접수: 2011년 12월 5일

논문심사: 2011년 12월 19일

게재확정: 2011년 12월 19일